당신은 무엇이 부족한가요

'결핍의 경제학'

센딜 멀레이너선·엘다 샤퍼 지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다. 부족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일상의 불편이 새로운 탄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발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디슨의 전동타자기, 백열등 같은 발명품은 그 같은 사례다. 포크를 비롯한 주방기구, 지퍼나 원터치 캔 같은 사물 등도 불편이 아이디어로 연계된 케이스다.

이렇듯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의 결함은 새로운 발명품의 기폭제가 되었다. 무언가 부족한 상태인 '결핍'은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결핍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강력한 기제 가운데 하나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센딜 멀레이너선과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 엘다 샤퍼가 결핍을 화두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책을 펴냈다. 이들이 발간한 '결핍의 경제학'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정된 자원' 즉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를 매개로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본다.

저자들은 무언가 결핍상태일 때 인간은 그것에 매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가령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빚진 사람은 돈에 몰두하고, 외로운 사람은 짝을 찾는데 공을 들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미있는 연구사례 하나를 예로 든다. 2012년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Psychological sciecce)라는 심리과학협회지에 소개됐던 연구다.

연구는 피실험자들에게 서너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실험실로 오라고 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식사를 하러 보냈고 나머지는 계속 굶게 했다. 얼마 후 이들 모두에게 스크린에 특정한 단어가 나타났다 사라지면 어떤 단어인지를 맞추게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혹자는 배고픈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부른 사람보다 많이 틀렸을 거라 예상한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은 대부분의 과제에서 배부른 사람 못지않게 답을 맞췄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결과가 눈길을 끈다.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과 관련된 단어에서 유독 반응이 빨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이크라는 단어가 잠시 스크린에 나왔다 사라지면, 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드러냈다. 답을 맞추는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집중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특정한 대상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심리 현상을 보인다. 이 같은 결핍은 일정한 패턴, 즉 '자원부족-터널링-저글링-미봉책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저자들은 이를 '결핍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결핍에 빠지면 '터널링'(tunneling) 단계에 들어서는데 긴 터널 안에서 출구만 보이고 주변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결핍의 대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과제 제출 기일이 다가오면 리포트 작성에 더 몰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결핍은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마치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핍의 덫'에 걸렸을 때 일어난다.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다른 긴박한 일이 생기고 그 이상의 문제들이 일시에 몰려든다. 설상가상의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글링'의 상태다. 카드 돌려막기가 이 같은 사례다.

결국 여러 개 공 가운데 땅에 떨어지려는 공에 신경을 쓰다 보니 모든 게 엉망이 된다. 근시적인 '미봉책'은 꼬인 실타래처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결핍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닌다. 저자들은 "결핍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에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면 결핍의 덫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유해성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한다.

어쩌면 기사 마감이 닥쳐야 기사가 써지는 기자들도 결핍에 익숙한 이들인가 보다.

〈RHK·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역사의 라이벌'이 된 父子

'부자의 길, 이성계와 이방원'

이덕일 지음

역사학자 이덕일이 '정도전과 그의 시대'에 이은 역사특강 두 번째 책 '부자의 길, 이성계와 이방원'을 출간했다.

조선 개국의 동지 정도전을 제거하고 부자지간에서 역사의 라이벌이 된 이성계·이방원 부자의 파란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했다.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웠다.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개국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위에 올린 주인공이었다. 그럼에도 태조는 이방원을 배제하고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왕이 되고 싶은 이방원에게 개국공신 정도전의 존재는 눈엣가시였다. 방원은 정도전이 태조가 위독하다고 속이고 왕자들을 궁중으로 불러 죽이려 했다고 트집을 잡아 사병을 동원해 정도전 일파와 세자 방석을 살해했다. 그런데 난에 성공한 이방원은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방과를 세자로 삼는다. 그의 숨겨진 계획은 무엇일까?

동지에서 골육상쟁의 비극을 겪으며 역사의 라이벌이 된 두 부자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태종은 권력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악역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군주였다. 그의 악역을 통해 신생 조선왕실이 반석 위에 서고 그 토대 위에서 세종 르네상스라는 꽃이 피어났다."

〈옥당·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종이에 경의를 표해야 할 시간

'종이가 만든 길'

에릭 오르세나 지음

"어느 날 문득 종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늦진 않았다. 종이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종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지금, 길을 떠나야 한다. 종이의 길을. 소중한 종이여!"

철학과 경제학, 정치학과 인문 분야를 넘나드는 세계적 석학, 에릭 오르세나가 쓴 '종이가 만든 길'이 출간됐다.

저자는 종이를 맨 처음 발명한 사람들부터 오랜 세월 동안 중국대륙 안에 머물러 있던 종이가 어떻게 아랍을 거쳐 유럽대륙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AD 8세기에 아랍에 전파된 종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보다 무려 500여 년이나 뒤쳐진 AD 13세기나 되어서야 비로소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놓치지 않고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

책은 또 마르셀 프루스트와 루이 파스퇴르 등 세계적인 문학가 및 과학자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그들의 원고를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 괴도 루팡이나 셜록 홈즈 시리즈보다 더 흥미진진한 프랑스 '위조지폐 제조왕' 보자르스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화장지, 종이접기처럼 시시콜콜하면서도 종이의 다양한 속성과 입체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도 곁들였다. 〈작은씨앗·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분노와 욕망으로 굴곡진 '우리'

'누가 개를 쏘았나'

김영현 지음

현실을 날카롭게 응시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탐구를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온 전 실천문학 대표 김영현 작가가 신작을 펴냈다. 지난 2007년 발표한 '낯선 사람들' 이후 7년 만에 펴낸 '누가 개를 쏘았나'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담고 있다.

소설은 평온한 시골 마을 바람골에 개들이 의문의 총상을 당하면서 시작된다. 우연히 바람골에 찾아든 장하림이라는 남자가 범인을 추적하는 주인공을 맡는다. 개를 죽인 범인과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이 소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추리 서사를 축으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베트남 참전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개발 이익만을 탐하는 세력들의 이기심 등이 자연스레 녹아든다. 그 속에 젊은 주인공들과 개발업자, 노인들의 굴곡 많은 삶이 거대한 벽화처럼 서서히 펼쳐진다. 〈시간여행·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치유'로 인도할 한장의 작은 지도

'서정과 서사의 미로'

지주현 엮음

시에 담긴 전통적 아름다움을 미려한 평론으로 갈무리한 책이 나왔다. 전남대 강사인 지주현 박사가 펴낸 '서정과 서사의 미로'는 몇 개의 테마를 축으로 시를 소개한 평론집이다.

책은 2008년부터 5년 간 '시와 사람' '시와시' '현대시' 등의 문학잡지에 기고한 글을 묶은 것으로, 시의 전통 정서와 보편적 성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전통 정서와 비견되는 초현실주의 시풍, 현실에서 동떨어진 상상력과 새로운 감각을 구현한 작품들을 조명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 생태주의를 구현한 시들을 대상으로 현대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고착화된 관료제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획일화의 세태 속에 놓여 있다"면서 "한 장의 작은 지도를 찾는 심정으로 전통과 초현실주의, 생태 및 치유에 이르는 담론을 연결시켜보았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푸른사상·2만1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연에 나를 던지다

'대한민국 오지 캠핑장'

성연재·채경규 지음

"캠핑은 온몸을 자연 속으로 던져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매주 캠핑을 떠나는 자타공인 캠핑마니아가 쓴 캠핑 관련 책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진부 성연재 기자와 캠핑 전문가 채경규씨가 펴낸 '대한민국 오지캠핑장 101'은 전국 방방곡곡의 오지 캠핑장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들은 초보 가족 단위 캠퍼들을 위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오토캠핑장에서부터 야생의 캠핑을 만끽할 수 있는 고수들을 위한 캠핑지 정보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캠핑장 주소, 캠핑료, 수용능력, 바닥상태와 배수상태 등 캠핑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대체 캠핑장과 대상 캠핑지 주변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까지 캠핑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관련 정보도 다수 수록돼 있다. 군산 선유도해변캠핑장, 무주 덕유산 덕유대야영장, 구례 지리산연곡사야영장, 장성 남창계곡캠핑장, 해남 땅끝오토캠핑장, 신안 비금도 원평해변캠핑장, 완도 청산도 지리해변캠핑장, 여수 금오도 안도해변캠핑장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캠핑 추천 계절, 개수대와 음수대, 화로대, 전기시설 등의 정보도 상세하게 실려 있어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비타북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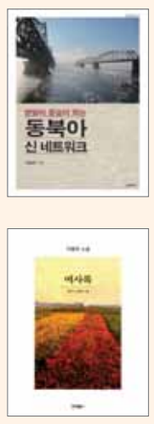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목소리를 높여 high!**=악동뮤지션의 음악 에세이. 평범했던 찬혁·수현 남매가 악동뮤지션이라는 꿈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기록했다. 몽골에서 자란 남매가 홈스쿨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겪는 내적 성장과 갈등,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겪은 부모님과의 갈등, 'K팝 스타'라는 관문을 거치며 꿈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간, 진정한 뮤지션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고민하는 음악적 성장의 시간 등을 담았다. 〈마리북스·1만4000원〉

▲**민주시민을 위한 도덕교육**=왜 우리 사회는 도덕적 실천이 어려운가. 정치·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시민의 도덕적 역량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책은 급변하는 시대에 왜 다시 도덕을 치밀하게 연구해야만 하는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도덕교육의 전통과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민주시민을위한 진정한 도덕교육을 촉구한다. 〈살림터·2만5000원〉

▲**편안함의 배신**=세상은 편리해지는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 편리한 것들로 마비된 내 삶을 복원시키는 신개념 인생 전략서. 심신의학을 연구하는 저자 마크 쉔은 갑작스러운 이혼 후 편안함 중독으로 인해 사소한 불편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만큼 취약해져 있음을 깨닫게 됐다. 그는 극도로 예민해진 생존본능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를 헤쳐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말한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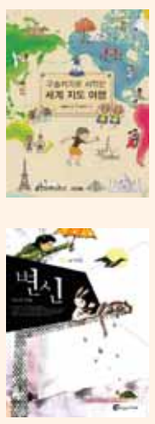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긴장된 남북한 상황에서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수단은 경제 협력이다. 저자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물류·구조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시했다. 네트워크상의 물류는 정치·경제·문화가 교류하는 교량임을 강조하며, 물류 네트워크 시스템이 동북아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했다. 〈산지니·2만원〉

▲**여사록**=한국 문학의 걸출한 작가 나림(那林) 이병주의 소설집. 방대한 분량의 이병주 작품이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사록', '칸나·X·타나토스', '중랑교'를 한 권에 묶었다. 부록 형식으로 '풍류에 서린 산수', '지리산학'도 함께 묶었다. 소설 세 편과 부록 두 편은 진주, 부산, 중랑교, 지리산을 가로지르며 이병주의 문학적 지향점에 이르고자 했던 그의 작품 세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바이북스·1만1000원〉

▲**의식주의 무서운 이야기**=우리가 상식이라 믿고 있는 식품, 의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친다. 저자는 갖가지 사례를 들어 우리를 둘러싼 각종 위험에 대한 진실을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잡다단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독서다. 〈어젠다·1만3900원〉

어린이 책꽂이

▲**구슬치기로 시작한 세계 지도 여행**=세계 지형과 지리적 특성, 기후, 자연과 환경을 먼저 알려주고,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겨난 그 지역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문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준다. 지구의 빈곤, 환경, 종교, 인구, 물 부족 문제 등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를 아이 수준에 맞게 짚고 넘어간다. 〈사계절·1만2800원〉



▲**변신**=매번 백점을 놓치지 않지만 그 이유 때문에 시험이 부담스러운 찬오, 형 찬오 때문에 언제나 찬밥 신세인 건오, 할머니와 단 둘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영지는 저마다 각자의 상처와 결핍을 안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의 힘으로 인간과 삶에 대해 알아가는 초등 고학년을 위한 책이다. 〈높새바람·8500원〉

▲**5대 가족**=한국 문단 최고 시인 고은과 그림책 작가 이억배가 만든 티베트 유목민 가족의 일상을 담은 그림책. 5대에 걸쳐 흐르는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와 평화로움, 자연에 순응하며 만족해하는 그들의 삶은 대자연 모습 그대로다. 고조할아버지와 여섯 살배기 손자 텐진이 함께 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정다움을 자아낸다. 〈바우솔·1만2000원〉

▲**기름 뚝뚝 햄버거, 너 없인 못 살아!**=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경고하는 그림책.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메뉴를 개발하지만 그 이면에는 패스트푸드가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이며 비자연적인 정크 푸드라는 폭로가 들어 있다. 과소비, 패스트푸드, 허위광고 등에 대해 풍자하는 작품을 많이 쓴 엘리즈 그라벨의 작품이다. 〈토토북·1만원〉

▲**역사 왕이 되는 한국사 이야기 1,2**=우리 역사를 이야기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과목에 등장하는 한국사와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해 역사 전반에 재미를 느끼고 의문이 꼬리를 물게 해 역사적 사고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름다운사람들·각 권 1만5000원〉